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산업 13% 증가

코로나에도 3년간 연 11% 성장세...정보보안 16%·물리보안 12% ↑ 재택근무 클라우드 전환 수요 늘고 비대면 출입통제 시장 급성장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13%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산업은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3.4% 성장하며 최근 3년(2019~2021년)간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시장 규모(매출액)가 2020년 12조 2242억원에서 지난해 13조 8611억원으로 성장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정보보안 부문(4조 4497억원)이 16.0%, 물리보안 부문(9조 3114억원)이 12.1%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

적 대유행) 이후 네트워크 보안, 콘텐츠·데이터 보안, 폐쇄회로(CC)TV 부품,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등 비(非)대면 보안 인프라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정보보호 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택근무를 위한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늘면서 네트워크 보안(9432억원·27.0%), 콘텐츠·데이터 보안(6122억원·13.5%)이 정보보안 시장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리보안 시장의 경우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출입통제 시장의 급성장, 유통·제조업에서 무인 편의점·점포의 등장 등으로 인해 출동보안 서비스는 19.6% 증가한 2조 2970억원, 보안용 카메라는 17.3% 성장한 1조 6566억원, 열화상 카메라·열화상 센서 같은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은 46.9% 늘어난 4789억원으로 각각 커졌다.

정보보호 기업 숫자는 전년보다 약 18.2% 증가해 1283곳에서 1517곳으로 늘었다. 정보보안 기업은 26.0% 늘어난 669곳, 물리보안 기업은 12.8% 증가한 848곳이었다.

정보보호 인력도 2020년 5만4706명에서 16.2% 증가한 6만3562명으로 늘었다. 일반 기업의 보안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로 정보보호 기업의 인력 수요가 대폭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보보호 산업 전체 수출액은 8.5% 증가한 2조767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CCTV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보안용 저장장치, 관련 주변 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노력과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정보보호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이동통신 이용자 절반, 가입 통신사에 불만 5G 만족도 LTE보다 낮아...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63%

이동통신 이용자 절반이 가입 통신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자들은 요금을 중시했지만 만족도는 통탄에불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보다 낮았다.

LTE 비중이 높은 알뜰폰 이용자의 가입 통신사에 대한 만족도가 이동3사 가입자보다 높아 알뜰폰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5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전국 20~59세 LTE·5G 스마트폰 이용자 2천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5G 이용자의 만족도는 46%에 그치며 LTE 이용자(52%)보다 낮았다. 5G 이용자가 중시하는 요금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5%와 41%로 LTE(45%, 41%)보다 낮거나 비슷했다.

5G 이용자의 불만 이유는 LTE로 전환되는 점(43%), 속도(40%) 등이 꼽혔다.

5G 이용자 중 64%는 통신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LTE 이용자(42%)보다 높았다.

5G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23%로 나타나 2020년 조사 기준 30%보다 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로 최신 스마트폰이 5G 단말기인 점을 가장 많이(56%) 꼽았다.

5G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비싼 요금(58%), 속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점(58%) 등을 들었다.

통신사 중에서는 알뜰폰 가입자의 만족도가 63%로 가장 높았다. 알뜰폰 가입자는 요금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92%로 많았던 반면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결합 혜택(75%)과 장기·우수 고객 혜택(72%)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통신사 전환 때 선호하는 회사로 27%가 알뜰폰을 선택했다. 이는 작년 18%보다 9%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자급제 단말 구매 시 통신사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24%였으며, 이 중 64%는 알뜰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뉴스

KT-(주)미소능력개발센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협약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계획 추진에 발맞춰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최근 (주)미소능력개발센터(대표 강현신, 미래클평생교육원)와 교육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2025년까지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코딩교육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KT 시를 기반으로 하는 코딩교육이 미래 인재양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공>



인공지능과 클래식 '융합콘서트'

국립광주과학관, 17일 상상홀...장동선 박사 초청 강연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 17일 오후 2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제2회 인공지능 융합 콘서트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작곡한 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유명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를 초청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간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강연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 클래식 공연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이 작곡한 곡과 사람이 만든 곡을 각각 연주해 어떤 곡이 인공지능의 곡인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진다. 정답을 맞춘 어린이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2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연이 진행된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낸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하는지를 알아보고,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모든 데이터와 신호가 온라인화 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융합콘서트를 통해 인간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합콘서트의 참여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사전예약 후 현장입장이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oL 최대 국제 대회 '월드컵' 24개 팀 조편성 확정...젠지, 8강 진출 관측

이달 말 개막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제 대회 월드 챔피언십(월드컵)에 출전할 24개 팀과 조 편성이 확정됐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12일(한국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조 추첨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월드컵은 올해 전 세계 LoL 지역별 프로리그에서 상위권에 든 팀들이 겨루는 LoL 최대 국제 대회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에서는 젠지(Gen.G), T1, 담원 게이(DK), DRX 등 총 4팀이 진출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월드컵 조별리그는 플레이-인 스테이지와 그룹 스테이지 2단계로 나뉜다.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는 하위권 12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와 토너먼트로 4개 팀을 선발하고, 이어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상위권 12팀과 플레이-인 스테이지 통과 팀 4팀이 4개 조로 편성돼 8강전 진출 팀을 가린다.

올해 LCK 서머 우승팀인 젠지는 동남아 리그 PCS의 'CTBC 플라잉 오이스터', 북미 리그 LCS의 '100 썬브즈'와 같이 그룹 스테이지 D조에 편성돼 무난하게 8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T1은 A조에서 작년 월드컵 우승팀인 중국 리그 LPL의 에드워드 게이밍, LCS 서머 플레이오프 우승팀인 클라우드나인과 맞붙는다.

DK도 LPL 서머 우승팀인 중국의 장동 게이

밍, 유럽 리그 LEC 소속의 강팀 G2와 B조에 편성돼 접전이 예상된다.

월드컵 4번 시드인 DRX는 플레이-인 스테이지 B조에 편성돼 올해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우승팀인 LPL의 로얄 네버 기브업(RNG) 등과 그룹 스테이지 진출을 놓고 겨룬다. 연립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Advertisement for DK air purifiers. It features a living room scene with a sofa and coffee table. A large wall-mounted air purifier is shown on the left, and two smaller desktop models are on the coffee table. On the right, two more models are shown. Text includes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and product names like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and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A phone number '1544-1154' is at the bottom left.